

임부의 모성 정체성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김 혜 원*·홍 경 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생주기에 있어서 임신은 결혼한 여성이 모성으로 전환되는 시기로서 여성 자신에게는 발달과 성숙의 기회이자 태아에게는 모체의 선천적 환경으로서 출생 후 아기의 성장 발달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기간이다. 임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으로부터 여성은 이미 모성으로서 태아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임신 동안 보이지 않는 모-태아 관계는 발달된다. 이 관계는 출산 후 실제 모-아 관계로 지속 발전되므로 한 여성이 지니는 모성으로서의 역할은 가족 발달 주기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평생 지속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가 되는 과정을 부모로의 전환이라고 볼 때 Goldberg(1993)는 부모로의 전환은 임신 시작으로부터 분만 후 1개월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하였고, Imele(1990)은 임신을 부모기로의 역할 준비기 또는 역할 전환에 대한 준비기라고 하였다. 또한 Michaels와 Goldberg(1993)는 전환의 관점에서 부모 됨의 과정은 임신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실제 부모가 되기 이전의 예비 부모로서의 기능 상태는 산후의 기능 상태, 결혼 관계, 그리고 개인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예측 인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같은 주장은 어머니가 되는 시점은 적어도 임신 과정 동안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예비 어머니로서의 기능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어 어머니가 되는 과정은 출산 이후의 현상 뿐 아니라 임신 과정 동안의 현상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머니가 되는 과정은 현실적으로 볼 때 임신 기간 태아와의 관계로부터 형성 발달되어 산 후 실제 어머니 역할로 점진적으로 진행된다고 본다.

임신 기간을 어머니가 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인식할 때 임신 기간 동안 어머니가 되는 핵심적인 현상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가 되는 현상을 모성(motherhood)이라고 할 때 모성을 대표하는 개념 중의 하나가 바로 모성 정체성(maternal identity)이다. Mercer(1981)와 Rubin(1967, 1984), 그리고 Walker와 Crain 그리고 Thompson(1986)은 motherhood의 중심 개념으로 모성 정체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모성 정체성은 이론적으로 볼 때 모성의 주요 특성으로 간주되므로 모성 연구에 있어서도 모성 정체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모성 정체성에 관한 국내 연구(이은숙, 1992; 이혜경, 1992)를 보면, 주로 산육기 여성을 대상으로 중요한 모성의 지표로서 제시되었고, 뿐만 아니라, 산육기 여성의 모성 정체성을 측정하였던 기존의 도구들은 어의 구별 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로서

* 관동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어머니로서 자신이 갖는 이미지 지각만을 측정하여 모성 정체성의 일부분을 이해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모성 정체성이 지닌 다른 중요한 차원은 포함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모성 정체성은 임신과 함께 발전하는 모성의 특성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며(Rubin, 1984; Walker et al., 1988), 이은희(1995)의 질적 연구에서 임부는 모성의 주요 개념으로 모성 정체성을 경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모성 정체성은 임부가 경험하는 중요한 모성(motherhood)의 특성중의 하나로 인정되는데, 아직까지 임신 동안의 모성 정체성은 추상적 차원의 주관적인 경험이었을 뿐 객관적으로 측정되지 못한 점을 문제로 들 수 있다. 이에 임부의 모성 정체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배경에 의해 조작화하여 개념의 차원을 구분하여 척도를 개발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모성 정체성의 조작화 과정은 Rubin(1984)의 관점과 견해를 같이하여 임신 동안 모성 정체성은 발전한다는 사실, 그리고 모성 정체성은 직관이나 본능이 아닌 학습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인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이 관점은 추상적인 모성 정체성을 인지적 특성으로 구분하게 해주고 적극적인 과정으로 설명하므로써 임부의 모성 정체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며, 모성과 관련된 이론 발달과 연구에 촉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그 동안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임부의 모성 정체성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의 시도로서 임부의 모성 정체성을 측정하는 간호 사정의 도구로 이용될 것이며, 초기 모성 전환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적 틀이 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Rubin(1984)의 모성 정체성을 개념적 기틀로 하여 조작화한 후 어머니 이미지 지각을 제외한 임부의 모성 정체성의 차원을 측정하고자 우리 나라 임부를 대상으로 임부의 모성 정체성 척도를 개발하여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데 있다.

3. 용어 정의

모성 정체성

- 이론적 정의 : 아기의 어머니로서 이상적인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 이상적인 것을 향하는 것이며 새롭고 바람직한 태도, 능력, 그리고 이상적인 요소들을 갖춘 모델을 찾기 위해 환경과 기억을 탐색하는 것이며 모방을 거쳐 자신의 모습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Rubin, 1984).

- 조작적 정의 : 임신한 여성이 어머니로서 자기와 태아와의 상호성에 기초하여 어머니로서의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지각하는 정도, 심상적으로 태아에게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 태아와의 상호작용 정도, 그리고 자신과 태아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의 정도를 말한다.

4. 연구의 제한점

- 1) 본 연구는 대상자를 임의 표출에 의해 선정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모든 임부에게 일반화할 수 없다.
- 2) 본 연구는 임부에 있어서 모성 정체성의 개념을 부분적으로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II. 문헌 고찰

먼저 모성 정체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임부의 모성 정체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 모성 정체성의 개념

모성이란 여성이 어머니로서 갖는 감정, 이성, 의지 등을 말하고, 모성형이란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기에 적당한 성질을 가진 여자를 뜻한다(민중서림, 1984). 또한 모성은 어머니로서의 임무와 어머니의 특성이나 질을 포함하는 개념(Webster, 1988), 또는 분만하여 어머니가 되는 것으로 정의된다(최연순 외, 1987).

한편 정체성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identitas*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그 사람에 틀림 없는 본인이다, 그것의 자기 자신, 정체”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박아청, 1995). Erikson(1968)에 의하면 자기의 밑바탕에서 항상 무엇을 하든 그것이 아니면 인생의 모든 것을 볼 수 없게 될 정도로 개인에게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만이 정체성이다. 즉 자기의 연속성, 단일성 또는 독자성, 불변성이고 또 이와 같은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conscious sense of individual identity*)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로서의 많은 자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수시로 ...로서의 자기를 선택하고 때에 따라서 질서와 서열을 정하면서 한편으

로 통합하는 근원적인 자기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자아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라 하였다.

인생 주기와 정체성의 관계를 보면 정체성이란 개인이 자기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성을 인식하는 것이며, 자신을 독특한 존재로 인지하면서 동일시와 사회적 역할을 융합하여 하나의 자아를 찾으려는 자아 통합 과정인데, 특히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것(motherhood)은 여성 자신의 정체성 탐색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된다(Erikson, 1968). 또한 Ludington-Hoe (1977)에 의하면 모성(motherhood)이란 여자다움의 궁극적 증거이고, 여성이면서 성인생활으로서 삶의 핵심이 된다고 하면서 모성 정체성은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동등하다고 하였다.

모성의 중요 특성으로 Rubin(1967)과 Mercer(1981)은 모성 정체성과 모성 역할 획득을 거의 동의적으로 사용하였으나, Walker et al(1986)은 모성 정체성을 모성 역할 획득의 한 요소로 보아 모성 역할 획득을 모성 역할 수행과 모성 정체성으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이은희(1995)의 연구에서는 모성 전환을 모성 정체성, 모성 역할, 모-아 상호작용으로 구분한 바 있다. Rubin(1984)은 모성 정체성에 대하여 “자녀를 임신하고 양육하는 각각의 경험은 여성의 자아체계안으로 새로운 성격 차원을 통합하게 된다. 성공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에 의한 자아 통합은 어머니로서의 자기의 실제 이미지를 정련시킨다. 통합 과정은 의지적 과정이며 바람직한 특성으로 변하고 성취하려는 열망과 이상적인 것의 수행에 의해 동기화된다. 전 인격의 일부분으로서 결합하여 분리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모성 정체성이다”라고 규명하였다.

이상으로 모성과 정체성 및 모성 정체성을 고찰하였는데, 모성 정체성은 모성과 정체성이 합성된 개념으로서 근본적인 정체성과는 관련이 있으나 고정 불변하는 정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모성 역할 획득(수행), 모-아 상호작용(애착) 등의 용어와 명확히 구별되지 않으며 또한 여성의 자아세계로 전 인격적으로 통합되는 의지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2) 임부의 모성 정체성

다음은 임부의 모성 정체성의 차원을 Rubin(1984)의 관점에 의해 구체화하였다. Rubin(1984)은 “모성 정체성이 자아체계안으로 통합되는 과정은 한 아기의 어머니로서 자신(self)의 이미지를 이상화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이상적인 것을 향하는 것이고, 새롭고 바람직한 태도와, 능력, 그리고 이상적인 요소들을 갖춘 모델을 찾기 위해 환경과 기억을 탐색하는 것이며, 자신의 것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아기에 대한 모성 정체성의 발달은 개념적 행동적 양식으로 표현되는 일련의 인지적 활동으로 나타나고 인지적 활동과 그에 따른 개념적 행동적 양식은 임신의 진행에 따른 아기의 발달과 함께 진전된다. 임신 동안 모성 정체성은 복제, 환상에 의해 발달되는데, 이는 상황과 경험의 가능성을 인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흉내와 역할극을 통한 복제는 어머니가 되는 다리 역할로서 의지적 작용이며 환상이란 어머니와 아기를 미래 속의 이미지로 투사하는 것인데, 어머니로서 자신과 아기를 결합하는 도구가 된다. 유패한 환상은 희망을 발생시키고 불유패한 환상은 불안을 야기시킨다. 임신 동안 가장 좋아하는 환상은 아기이며 여성은 환상에서 아기를 위한 바람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상의 모성 정체성 개념은 정서적 차원을 포함하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정신 활동으로 묘사되어 다음과 같은 인지적 특성과도 부합된다. 즉, 인지(cognition)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활동이며 개인이 지식(정보)을 처리하는 방식을 말하는 행위 단어를 말하는데, 인지란 어떤 자극을 지각하고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이에서 일어나며, 지각 행위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현대에 이르러서 인지에 관한 견해는 인지를 의식적인 사고 과정에만 배타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마음(mind)의 두 가지 차원인 의지(conation), 및 정서, 감정(emotion, feeling)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김영채, 1995). 한편, 인지 과정은 정서(emotion)를 포함하는데, 인지 과정에서 적극적인 노력, 집중, 지각 등이 능동적인 차원이라면 그에 수반된 정서적 반응은 수동적인 것으로 본다(소흥렬, 1992).

Rubin(1984)이 주장하는 임부의 모성 정체성에 관한 개념은 태아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하였으므로 정체성이란 어머니, 자식, 역사, 사회와 개인의 만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양자의 상호성(mutuality)에 기초를 둔다는 Erikson(1968)의 관점과도 근본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Rubin(1984)이 주장하는 임부의 모성 정체성은 태아와의 관계에 바탕을 둔 인지적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임부의 모성 정체성이란 임신한 여성이 태아와의 상호성에 기초하여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를 지각하는 것, 심상적으로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것, 태아와 상호작용, 그리고

정서적 반응을 포함하는 것이다”.

다음의 문헌들은 Rubin(1984)의 주장에 의해 도출된 이상의 4가지 차원이 임부의 적응과 관련지어 중요한 차원이라는 점과 Rubin(1984)의 개념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Antonucci와 Mikus(1988)는 모성 정체성이란 부모로서의 가능한 자신(possible selves)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임신 동안 핵심적 의무라고 지적하였는데, 어머니로서의 자신은 야기 어머니로서 자신에 대한 이미지 지각의 평가(Walker 등, 1986 ; 이혜경, 1992)에 의해 측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임신 동안 어머니로서의 이미지 지각 역시 중요함을 나타내 준다. 둘째, Mercer(1985)는 어머니 역할 획득이란 확립된 역할 세트 안에서 모성 행위를 통합시키며, 어머니 역할에 대한 능력을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편안해 진다고 하였고, Rubin(1961)은 모성 정체성의 지각은 모성 역할 담당 행위(maternal role taking behavior)로 나타나며, 어머니 역할 획득 기간은 임신이 확인된 후부터 분만 후 3~6개월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 어머니로서 역할이란 임신 동안 가상적인 모성 행위를 통해 발전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Cranley(1981)는 주장하기를 모-아 관계란 출생과 동시에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임신과 함께 시작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을 반영하여 김현옥(1991)과 안숙희(1993)는 모-태아 애착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Rubin(1977)과 Leifer(1977)의 모성 정체성의 형성과 영아와의 애착은 같은 과정에서 서로 의존적이라는 주장을 볼 때 임신 동안의 모-태아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이은희(1995)는 임부의 정서적 반응은 어머니 역할 수행과 모성전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Lederman 등(1979, 1981)은 임신 동안 임부가 경험하는 양가 감정과 우유부단함, 공포, 긴장, 불안 등의 정서적 변화는 분만과 출산 시의 합병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머니와 태아의 안녕 상태에 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에서 임부의 모성 정체성 개념을 임부의 중요한 적응 차원인 어머니로서의 이미지 지각, 태아와의 상호

작용, 심상적인 어머니 역할, 정서적 반응의 차원으로 제시하므로서 간호 실무와 간호 연구에 있어서 임부의 모성 정체성이 지니는 실증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임부의 모성 정체성 개념은 제한적인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 지각, 행위, 정서를 모두 포함하는 인지적 특성으로 제시되므로서 Rubin(1984)의 모성 정체성 개념의 조작화 과정은 그동안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던 모성 정체성, 모성 역할의 의미를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임부에 있어서 모성 정체성 개념은 임부의 중요한 경험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현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임부의 모성 정체성을 Rubin(1984)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임부의 모성 정체성 개념은 다음 그림-1과 같이 어머니로서 이미지 지각, 심상적 어머니 역할, 모-태아 상호작용, 정서적 반응의 요인으로 구분된다.

Ⅲ. 연구 방법

1. 척도 개발 과정

본 연구의 목적은 임부의 모성 정체성 개념의 일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 과정이다. 연구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Rubin(1984)의 모성 정체성 이론에 근거하여 개념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작화하였다. 임부의 모성 정체성은 “태아의 어머니로서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정도, 어머니로서 태아에게 시행하는 심상적인 어머니 역할의 정도, 모-태아 상호작용의 정도, 그리고 임부가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 반응의 정도”를 말한다.

둘째, 이상의 4가지 차원 중에서 어머니 이미지 지각은 기존의 도구에 의해 측정되어 왔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나머지 차원인 심상적 어머니 역할, 모-태아 상호작용, 정서적 반응의 3가지 차원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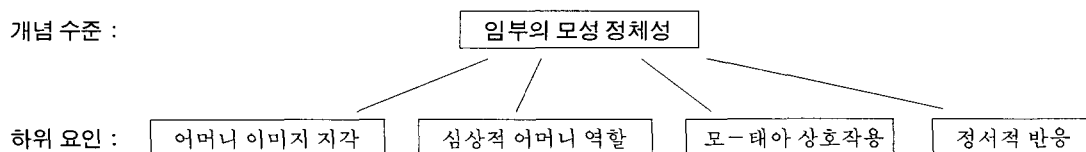


그림 1. 임부의 모성 정체성에 관한 개념적 기틀

셋째, 3가지 차원에 걸친 문항 개발은 Rubin(1984)의 저서인 "Maternal Identity and Maternal Experience"에서 주장하는 역할극, 흥내, 유쾌한 환상과 불안을 포함하고, Cranley(1981)의 태아 애착 도구 중에서 태아와 상호작용, 태아의 특성과 의도의 추측, 역할 취득의 문항을 참고하였으며 이해경(1992)이 Pharis self confidence scale을 수정하여 사용한 모성 역할 수행 척도에서 목욕시키기, 우유 먹이기, 옷 갈아 입히기, 잠재 우기의 문항을 참고하였으며, 이은희(1995)의 질적 연구에서 제시된 임부의 다양한 정서적 반응인 행복감, 짜증남, 불안, 우울, 양가 감정, 감정의 변화에 관한 결과들을 참고로 하여 3가지 차원의 문항을 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체 문항은 긍정적, 부정적 문항을 모두 포함하였고 어머니로서 태아에게 시행하는 심상적인 어머니 역할에 관한 8 문항, 모-태아 상호작용에 관한 16문항, 그리고 임부가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 반응에 관한 21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45개였다.

넷째, 제작된 문항이 개념적 기틀에 맞도록 조작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성 간호학 전공 박사 2인에게 내용분류표(table of specification)에 의해 각 문항이 모성 정체성의 차원에 적절하게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하도록 의뢰하였다.

다섯째, 전문가의 내용타당도상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하였는데, 아기-태아의 용어 통일, 긍정적 문항과 부정적 문항을 적절히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완성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 형식의 4점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러하다 2점, 상당히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된다. 각 문항의 점수는 합해져서 전체 점수로 측정된다. 이때 부정적 문항의 점수는 역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따라서 전체 문항의 점수를 총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모성 정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10명의 임부를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긍정문 문항과 부정문 문항을 배열하고 문항에 대한 질문 형식을 모두 통일하여 일관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임부이며, 대상자 수는 요인 분석을 실시할 때 문항 수의 4~5배가 되어야 하는 통계의 기본 제안에 따라 결정하였다. 그리고 대상자의 탈락율을 약 20%로 예상하여 총 200명을 대상자 수로 추정하였는

데, 결과적으로 전체 응답한 대상자 200명중 39명이 탈락되어 최종적으로 161명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대상자는 병원이나 의원의 외래를 방문한 임부들 중에서 연구 목적을 이해하여 연구 대상자가 되는데 동의한 임부들로서 질문지를 읽고 응답이 가능한 여성이었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임부의 모성 정체성 척도(Maternal Identity Scale in Pregnancy)는 어머니로서 태아에게 시행하는 심상적인 어머니 역할에 관한 문항, 모-태아 상호작용에 관한 문항, 그리고 임부가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 반응에 관한 문항으로 총 45문항의 4점척도로 구성되며 긍정적 문항 32개, 부정적 문항 13개로 구성되는데,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환산되어 최저 45점에서 최고 180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나타낸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부의 모성 정체성 정도가 높은 것임을 의미한다.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 기간은 1995년 12월 20일 부터 1996년 1월 15일까지였고, 대상자 선정은 연구자의 임의 표출에 의하여 서울, 강릉, 전주 소재의 산부인과 전문 병원, 의원에서 실시하였는데, 이는 가능한 대상자간의 인구학적 특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병원의 수준이 평준화되도록 고려했던 것이었다. 연구 보조원은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에 질문지를 나누어주어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고, 질문지는 바로 회수하도록 하였다. 질문지에 응답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5. 자료 분석

SPSS-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서술적인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개발된 척도의 타당성 검정은 Varimax회전에 의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각 요인간의 관련성은 Pearson 적률상관 계수로 확인하였다.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을 검사하는 Cronbach's α 계수로 계산하였다.

IV. 연구 결과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161명이었고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8.25세(표준편차 3.12)였으며, 첫 임신인 경우가 54.7%, 두번째 임신인 경우가 41.6%, 세번째 이상인 경우가 3.7%였다. 대상자들의 임신 기간은 임신 제1기가 8.7%, 제2기가 26.1%, 제3기가 65.2%를 차지하였다. 161명 임부의 모성 정체성(MISP) 평균 점수는 115.02점(SD18.08)으로서 척도의 중간 값인 90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임부의 모성 정체성 척도(MISP)의 타당도, 신뢰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척도의 타당도 검증

(1) 구성 요인 추출

임부의 모성 정체성 척도 45문항의 구성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에서 요인 추출 모델은 주요인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할 때 이용되는 기법이다(김범종과 채서일, 1994). 요인의 회전 방식은 Varimax 방식을 택하여 하나의 요인에 높게 적재되는 요인의 수를 최대한 줄여서 가능한 하부 요인들을 구별하고자 하였다.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은 어느 정도 적재량이 커야 유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없지만 보통 .30 이상이라면 적재량의 유

의성이 있다(김과채, 1994)고 보고 요인 적재량의 기준은 .30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기로 하였다. 요인 추출의 기준에는 Eigen value 1.0 이상, 또는 설명 분산이 5% 이상일 때까지 또는 요인들의 누적 백분율이 60% 정도를 설명해 주는 요인까지를 선정하는 방식, 그리고 연구자가 임의로 미리 정하는 것이 있다(이은옥, 임남영 및 박현애, 1991).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기준들을 모두 고려해 본 후 요인을 추출하기로 하였다.

초기 요인 분석 결과 Eigen value 1.0이상인 요인은 8개였으며 이들의 총 설명 변량은 65.3%였다. 이 중에서 설명 분산이 5%이상인 요인은 4개였으며, 이들의 설명 변량은 50.7%였다. 두번째 요인 분석에서는 현실적인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Scree test를 시행한 결과 요인 수는 6개였고 이들의 설명 변량은 52.4%였다. 세번째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문항 중에서 신뢰도가 낮아 제거하였을 때 전체 신뢰도가 높아지는 문항들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이 중 문항 2(태아의 성별에 대해 알고 싶다), 문항 6(태아는 배안에서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문항 7(태아는 배안에서 움직일 수 없다), 문항 29(태동은 징그럽다고 느껴진다), 문항 31(태아를 생각하면 불안하다)의 5문항을 제거하였는데 이들이 전체 척도와 갖는 상관 계수(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를 함께 고려하였다(표-1).

이상 5문항을 제거한 총 40문항에 대한 최종적인 요인 분석에서 요인의 수를 4개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연구자가 주장하는 이론적 차원을 고려한다면 요인의 수는 3

<표 1> 임부의 모성정체성 척도에서 제외된 문항과 전체 문항과의 신뢰계수

	SCALE MEAN IF ITEM DELETED	SCALE VRIANCE IF ITEM DELETED	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V 2	129.5813	319.6179	.1107	.3253	.9165
V 6	128.6000	335.0214	-.0380	.4239	.9170
V 7	128.4313	333.0770	.0385	.4427	.9157
V29	128.3813	334.1493	.0064	.4108	.9154
V31	128.9000	333.6126	.0131	.0131	.9161

<표 2> 임부의 모성 정체성 척도의 요인수, 고유값 및 설명 변량

요인	고유 값	설명 변량	누적 백분율
1	10.98023	27.5	27.5
2	3.71083	9.3	36.7
3	2.64642	6.6	43.3
4	2.36257	5.9	49.3

개일 것이나 요인 분석 과정에서 정서적 반응이 긍정적, 부정적 영역으로 뚜렷이 나뉘어지는 현상을 보였고, 또한 초기의 요인 분석에서 나타난 5% 이상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4개로 나타난 결과에 근거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세번째 요인 분석의 결과 4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들 요인의 총 설명 변량은 49.3%였다(표-2).

모성 정체성을 구성하는 40문항은 1요인 10문항, 2요인 11문항, 3요인 10문항, 그리고 4요인 9문항으로 확인되었다. 각 요인을 이루는 문항을 보았을 때 어느 요인에도 해당하지 않는 문항은 없었으며, 요인 1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요인 적재량은 .81에서 .50이었고, 요인 2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요인 적재량은 .72에서 .54였으며, 요인 3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요인 적재량은 .68에서 .43까지였고, 요인 4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요인 적재량은 .66에서 .51로 나타나 각 문항이 요인과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요인 1을 구성하는 문항들 중에서 문항 1(태아의 생김새를 그려본다), 문항 3(태아의 표정을 생각한다), 문항 4(태아의 크기를 생각한다), 문항 5(태아의 성격을 생각한다)는 모두 요인 3(모-태아 상호작용)으로 간주되었던 문항들이다. 요인 3을 구성하는 문항들 중에서 문항 22(태아가 놀 때 배를 쓰다듬어 잠잠하게 한다), 문항 23(태아를 놀게 하려고 배를 만져 준다)은 가상적인 어머니 역할 수행과 관련된 문항이었다. 요인 2와 요인 4를 구성하는 문항들은 척도 제작시 연구자의 분류와 일치하였다.

(2) 요인의 명명

각 요인의 설명 변량, 구성 문항의 내용과 요인 적재량은 다음 <표-3>에서 <표-6>까지와 같다. 각 요인에 대한 명명은 모성 간호학 전공의 박사 2인이 내용 타당도(face validity)를 심의한 후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결정되었다.

제 1 요인 ; 어머니 역할심상(Maternal Role Imagery)

요인 1은 모성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가장 설명 변량이 큰 요인(27.5%)이었으며, 구성 문항 중 가장 요인 적재량이 높은 것은 “태아를 잠재우는 장면을 상상한다, 목욕시키는 장면을 상상한다, 안아 주는 장면을 상상한다”의 순이었다. 요인 1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엄마가 태아의 특성을 추측하거나 기대하는 것, 그리고 어머니 역할을 상상 속에서 시도해 보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요인 1의 특성을 반영하는 이름으로 어머니 역할심상(Maternal Role Imagery)이라 명명하였다.

제 2 요인 : 행복감(Happiness)

요인 2는 모성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두번째로 변량(9.3%)이 크며 구성 문항들은 임신으로 인한 기쁨, 신비로움, 생동감, 사랑스러운 느낌, 자랑스러움등의 정

<표 3> 임부의 모성 정체성 척도 제1요인의 구성 문항과 요인 적재량

문항	내 용	요인 적재량
V20	태아를 잠재우는 장면을 상상한다	.81303
V19	태아를 목욕시키는 장면을 상상한다	.79326
V21	태아를 안아 주는 장면을 상상한다	.73812
V18	태아에게 예쁜 옷을 입히는 장면을 상상한다	.73726
V17	태아에게 모유를 먹이는 장면을 상상한다	.70895
V3	태아의 표정을 생각한다	.68271
V1	태아의 생김새를 그려본다	.53990
V16	태아가 무엇을 하는지 상상한다	.53382
V4	태아의 크기를 생각한다	.51669
V5	태아의 성격을 생각한다	.49611

Eigen Value 10.98023

서적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성 정체성의 정서적 반응 중에서도 긍정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행복감(Happiness)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4> 임부의 모성 정체성 척도 제2요인의 구성 문항과 요인 적재량

문항	내 용	요인 적재량
V25	이번 임신으로 매우 기쁨을 느낀다	.72093
V27	태아를 생각하면 가슴이 부듯하다	.70582
V45	편안함을 느낀다	.66310
V34	태동은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65965
V30	태동은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63947
V32	태아가 움직이면 기분이 좋다	.63033
V40	태아를 사랑한다	.62651
V42	태아는 내게 위안을 준다	.61724
V38	임신으로 변화된 모습은 자랑스럽다	.60152
V28	태동을 느끼면 행복하다	.56640
V36	임부복을 입는 것이 즐겁다	.53960

Eigen Value 3.71083

제 3 요인 ; 모-태아 상호작용(Maternal-Fetal Interaction)

요인 3의 설명 변량은 6.6%로 구성 문항들이 어머니가 태아를 확인하고 태아의 반응을 기다리며 적절히 자극을 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모-태아 상호작용(Maternal-Fetal Interaction)이라고 명명하였다.

한편, 문항 13(태아에게 이야기한다)은 요인 분석 결과 제 1 요인에 요인 적재량 .56852, 그리고 제3요인에도

요인 적재량 .48853으로 나타나, 이론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 3 요인에 속하도록 하였다.

〈표 5〉 임부의 모성 정체성 척도 제3요인의 구성 문항과 요인 적재량

문항	내 용	요인 적재량
V15	태아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확인한다	.67961
V22	태아가 놀 때 배를 쓰다듬어 잠잠하게 한다	.67838
V14	배를 만지면서 태아의 신체 부위를 느낀다	.65597
V23	태아를 놀게 하려고 배를 만져 준다	.63160
V10	태아로부터 신호를 기다린다	.56646
V11	태아의 신호에 답하려고 노력한다	.55907
V12	태아를 불러 보곤 한다	.55233
V13	태아에게 이야기한다	.48853
V9	태아는 배안에서 엄마의 감정을 이해한다	.47323
V8	태아는 배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엄마에게 알린다	.42905

Eigen Value 2.64642

제 4 요인 : 부정적 정서 (Negative Emotion)

요인 4는 마지막 요인으로 설명 변량이 5.9%였고 임부가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부정적 정서(Negative Emotion)라 명명하였다.

〈표 6〉 임부의 모성 정체성 척도 제4요인의 구성 문항과 요인 적재량

V41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다	.66391
V35	기분이 안절부절 하다고 느낀다	.61779
V26	울적하다고 생각된다	.59652
V44	이번 임신은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59192
V43	말을 하고 싶지 않다	.59103
V33	무력감을 느낀다	.58821
V39	신경이 날카로워 졌다	.56930
V24	이번 임신은 나를 지루하게 만든다	.55972
V37	커 가는 배를 보면 부끄럽다	.51258

Eigen Value 2.36257

이상 4개 요인이 모성 정체성의 하위요인들로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요인간 상관성을 Pearson상관 계수로 검정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어머

니 역할 심상)은 요인 2(행복감), 요인 3(모-태아 상호작용)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을 보였고, 요인 2(행복감)는 요인 1(어머니 역할 심상), 요인 3(모-태아 상호작용)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을 보이며 요인 4(부정적 정서)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을 보이고 있다. 요인 3(모-태아 상호작용)은 요인 1(어머니 역할 심상), 요인 2(행복감)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을 보이며, 요인 4(부정적 정서)는 요인 2(행복감)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을 나타내었다.

〈표 7〉 임부의 모성 정체성 척도의 요인간 상관 계수

구분	요인1(p)	요인2(p)	요인3(p)	요인4(p)
요인1	1.000			
요인2	.4965(p=.000)	1.000		
요인3	.6059(p=.000)	.5451(p=.000)	1.000	
요인4	-.0634(p=.426)	-.2603(p=.001)	-.1232(p=.121)	1.000

2. 척도의 신뢰도 검정

총 45문항으로 이루어진 개발 당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142였고, 요인 분석 과정에서 5문항을 제외한 총 40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 .924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40 문항 각각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보았을 때 문항 23(울적하다고 생각한다), 문항 28(무력감을 느낀다), 문항 30(기분이 안절부절 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문항 38(말을 하고 싶지 않다)에 관한 4문항은 전체 문항과의 상관 계수가 .20이하로서 척도를 구성할 수 있는 $r = .20-.30$ 의 기준(이은옥 외, 1991)에 미달하였지만 각 문항을 제거하였을 때 alpha 값이 크게 변화하지 않으므로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으로 인정하였다(표-8).

요인 분석의 결과 4개의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과 요인간의 상관 계수, 요인별 Cronbach's 는 표-9와 같다.

요인 1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906, 이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과 요인 1과의 상관 계수는 $r = .49$ 에서 .76였다. 요인 2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974, 이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과 요인 2와의 상관 계수는 $r = .49$ 에서 .75였다. 요인 3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566, 이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과 요인 3과의 상관 계수는 $r = .38$ 에서 .68이었다. 요인 4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756, 이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과 요인 4와의 상관 계수는 $r = .39$ 에서 .54의 범위였다.

〈표 8〉임부의 모성정체성 척도 40문항의 내적 일관성 검사

	SCALE MEAN IF ITEM DELETED	SCALE VRIANCE IF ITEM DELETED	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V1	112.43	312.17	.3953	.4386	.9235
V2	112.52	307.42	.5341	.6503	.9220
V3	112.25	312.42	.4208	.4713	.9232
V4	111.82	313.78	.4157	.4591	.9232
V5	111.76	315.04	.3343	.6174	.9241
V6	111.97	311.62	.3987	.6024	.9235
V7	112.27	309.03	.5529	.5863	.9219
V8	112.53	306.72	.6361	.6438	.9210
V9	112.58	304.40	.6543	.8098	.9207
V10	112.58	305.38	.6336	.8136	.9209
V11	112.28	307.42	.5048	.6854	.9223
V12	112.13	305.49	.5964	.7358	.9213
V13	112.59	308.86	.5367	.6521	.9220
V14	112.61	303.67	.6034	.6254	.9211
V15	112.32	305.77	.5763	.6526	.9215
V16	112.64	304.74	.6241	.8732	.9210
V17	112.62	304.95	.6160	.8818	.9211
V18	112.33	305.55	.5986	.6795	.9213
V19	112.29	307.63	.5032	.5318	.9223
V20	112.51	312.57	.3760	.4341	.9238
V21	111.63	318.59	.2816	.4783	.9244
V22	112.07	305.64	.6400	.7286	.9209
V23	111.68	322.79	.1363	.4862	.9255
V24	112.02	305.84	.6598	.7193	.9208
V25	112.08	306.83	.5611	.6551	.9217
V26	111.88	312.05	.4266	.5592	.9231
V27	111.02	309.94	.4881	.7089	.9225
V28	111.58	322.93	.1237	.4103	.9257
V29	111.97	310.74	.5087	.6530	.9223
V30	111.66	323.76	.0889	.4415	.9261
V31	113.13	313.39	.4086	.6153	.9233
V32	114.45	321.18	.2240	.4270	.9247
V33	112.94	307.50	.5374	.6449	.9219
V34	112.14	319.74	.2050	.4104	.9353
V35	111.52	314.20	.4755	.5276	.9228
V36	111.33	320.59	.2515	.5219	.9245
V37	112.34	307.16	.5687	.5404	.9216
V38	113.31	323.19	.1556	.4447	.9251
V39	111.50	318.92	.2664	.5027	.9245
V40	112.51	301.92	.7256	.7835	.9199

〈표 9〉 임부의 모성 정체성 척도의 요인과 구성 문항간의 상관 계수

요인/문항	내용	요인과의 상관계수
요인 1/ Cronbach's- α =.8906		
V20	태아를 잠재우는 장면을 상상한다	.7382
V19	태아를 목욕시키는 장면을 상상한다	.7633
V21	태아를 안아 주는 장면을 상상한다	.7082
V18	태아에게 예쁜 옷을 입히는 장면을 상상한다	.7023
V17	태아에게 모유를 먹이는 장면을 상상한다	.6872
V3	태아의 표정을 생각한다	.6084
V1	태아의 생김새를 그려본다	.4899
V16	태아가 무엇을 하는지 상상한다	.5758
V4	태아의 크기를 생각한다	.4945
V5	태아의 성격을 생각한다	.4889
요인 2/ Cronbach's- α =.8974		
V25	이번 임신으로 매우 기쁨을 느낀다	.7066
V27	태아를 생각하면 가슴이 부듯하다	.7405
V45	편안함을 느낀다	.7535
V34	태동은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6251
V30	태동은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5668
V32	태아가 움직이면 기분이 좋다	.6120
V40	태아를 사랑한다	.5515
V42	태아는 내게 위안을 준다	.6217
V38	임신으로 변화된 모습은 자랑스럽다	.6266
V28	태동을 느끼면 행복하다	.6200
V36	임부복을 입는 것이 즐겁다	.4901
요인 3/ Cronbach's- α =.8566		
V15	태아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확인한다	.6741
V22	태아가 놀 때 배를 쓰다듬어 잠잠하게 한다	.6321
V14	배를 만지면서 태아의 신체 부위를 느낀다	.5971
V23	태아를 놀게 하려고 배를 만져 준다	.5016
V10	태아로부터 신호를 기다린다	.6131
V11	태아의 신호에 답하려고 노력한다	.6781
V12	태아를 불러 보곤 한다	.6713
V13	태아에게 이야기한다	.6193
V9	태아는 배안에서 엄마의 감정을 이해한다	.4450
V8	태아는 배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엄마에게 알린다	.3804
요인 4/ Cronbach's- α =.7756		
V41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다	.5354
V35	기분이 안절부절하다고 느낀다	.4412
V26	울적하다고 생각된다	.4814
V44	이번 임신은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4856
V43	말을 하고 싶지 않다	.4489

요인/문항	내용	요인과의 상관계수
V33	무력감을 느낀다	.4683
V39	신경이 날카로워 졌다	.4163
V24	이번 임신은 나를 지루하게 만든다	.4886
V37	커 가는 배를 보면 부끄럽다	.3888

V. 논 의

본 연구 결과에서 임부의 모성 정체성 척도는 4개로 추출된 요인에 의해서 총 설명 변량의 49.3%를 설명하였는데, 이는 처음 개발된 임부의 모성 정체성 척도의 설명력이 50% 미만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행 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다소 설명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40개 문항들 중 6개 문항을 제외한 34개 문항들은 모두 개발 당시의 이론적 차원을 반영하여 각 요인을 구성하였고, 40문항들 중 요인에 속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도 없었던 점, 그리고 각 요인에 문항이 갖는 요인 적재량이 .43에서 .91까지 보인 것은 문항들과 각 요인간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로 개발된 척도의 구성 문항들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요인에 대한 명명은 어머니 역할심상, 행복감, 모-태아 상호작용, 부정적 정서로 이루어져 이들 요인의 명명에서도 모성 정체성의 인지적 특성이 반영됨을 볼 수 있다.

요인과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요인 2와 요인 4를 구성하는 문항들은 개발 당시의 이론적 배경에 따른 연구자의 분류와 일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요인과 문항간에 이론적 배경과 일치하지 않았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문항 1(태아의 생김새를 그려본다), 문항 3(태아의 표정을 생각한다), 문항 4(태아의 크기를 생각한다), 그리고 문항 5(태아의 성격을 생각한다)는 모-태아 상호작용의 차원으로 간주되었던 문항들이었는데, 요인 분석 결과 모두 요인 1(어머니 역할 심상)에 속하게 된 것은 이들 문항들이 모두, 을 그려본다, 생각한다의 문구로 이루어져 있어서 요인 1을 구성하는 문항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요인 3을 구성하는 문항들이 비교적 순차적인 행위적 속성을 갖거나 태아가 주체가 되어 어머니와 상호작용하는 내용들인데 비하여 이들 문항 1, 3, 4, 5는 어머니가 주체가 되어 태아의 근본적인 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문항들이므로 어머니 역할 심상과 관련된

문항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문항 22(태아가 놀 때 배를 쓰다듬어 잠잠하게 한다), 문항 23(태아를 놀게 하려고 배를 먼저 준다)은 어머니 역할 심상으로 간주된 문항이었는데, 요인분석 결과 요인 3(모-태아 상호작용)에 속하게 된 것은 요인 1이 그 특성으로서 상상력을 동원하는 내용이면서 비교적 지속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볼 때 이들 문항 22, 문항 23은 임신 중기 이후에 임부에게서 상상이 아닌 실제 행위를 나타내므로 결론적으로 볼 때 행위적 속성이 두드러지는 문항으로 생각된다.

요인들 간의 관계를 보았을 때 먼저 요인 1(어머니 역할 심상)은 요인 3(모-태아 상호작용)과 높은 정적 상관($r=.6059, p=.001$)을 나타냈는데, 이는 상상에 의한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태아라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된다. 또한 요인 1은 요인 2(행복감)와도 정적 상관($r=.4965, p=.001$)을 보이므로서, 임부가 상상에 의한 어머니 역할을 많이 할수록 긍정적인 정서에 관련이 있음을 제시한다. 어머니 역할 심상이란 실제 아기가 태어나기 전 태아를 상대로 한 가상적인 역할극(role play)으로서 이 요인은 Rubin(1984)이 지적한 임신 때 모성 정체성의 발달은 역할극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반영한다. 두번째 요인 2(행복감)는 요인 1(어머니 역할 심상)과 정적 상관($r=.4965, p=.000$), 요인 3(모-태아 상호작용)과 정적 상관($r=.5451, p=.000$)을 보였고, 그리고 요인 4(부정적 정서)와 부적 상관($r=-.2503, p=.001$)을 나타내므로써 임부가 태아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은 임부의 행복감과 관련이 높은 반면, 행복할수록 부정적인 감정은 줄어든다고 해석된다. 요인 3(모-태아 상호작용)은 요인 1(어머니 역할 심상), 요인 2(행복감)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므로써 태아와 많은 관계를 가질수록 어머니 역할을 더 많이 상상하게 되고 행복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요인 4(부정적 정서)는 요인 2(행복감)와의 관계에서만 낮은 부적 상관($r=-.2603, p=.001$)을 보이므로써 임부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수록 행복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부의 모성 정체성 척도에 대한 신뢰도 검정 결과 전체 신뢰도 계수 alpha는 .9245, 각 요인의 alpha는 .7756에서 .8974까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고,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과 요인간의 상관정도 최저 $r=.38$ 최고 $r=.76$ 까지의 범위를 보이므로써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임부의 모성

정체성 척도는 Rubin(1984)의 이론적 주장을 인지적 차원으로 확인하였고, 각 요인들은 독립적이기 보다는 상호 관련성을 나타내므로 모성 정체성의 인지적 차원 역시 상호 관련된 관계로 해석된다. 모성 정체성의 인지적 구조는 어머니 이미지 지각과 함께 추후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 척도는 임부의 모성 정체성을 측정하는 사정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이미지 지각 차원은 기존의 도구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척도 개발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임부의 모성 정체성을 전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에 부가적으로 어머니 이미지 지각을 측정하여야 하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와 병행하여 측정할 때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모성 정체성 이론(Rubin, 1984)에 근거하여 임부의 모성 정체성 측정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시도였다. 본 연구는 서울, 강릉, 전주 시내의 임부 161명을 대상으로 하여 1995년 12월 20일에서 1996년 1월 15일까지 개발된 45문항에 대한 질문지 조사법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Rubin(1984)의 모성 정체성 이론에 입각하여 기존에 측정되었던 어머니 이미지 지각 이외의 임부의 모성 정체성에 관한 차원을 측정하고자 45문항의 척도를 개발하였고, 주요인 분석 방식의 Varimax회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최종적으로 선택된 40문항은 어머니 역할 심상, 모-태아 상호작용, 행복감, 부정적 정서의 4가지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이들 요인들의 설명 변량은 49.3%였으며, 40개 문항들은 각 요인에 .43이상의 유의한 적재량을 보였다.

2) 각 요인의 구성 문항과 명명에 대해 제 1요인은 어머니 역할 심상이라 명명하였고 10문항으로 구성되며, 제 2요인은 행복감이라 명명하였고 11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제 3요인은 모-태아 상호작용이라 명명하였으며 10문항으로 구성되며, 제 4요인은 부정적 정서라 명명하였으며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개발된 척도의 내적일 관성은 전체 40문항에서 Cronbach's - alpha = .93, 각 요인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Cronbach's - alpha = .89, .90, .86, .78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본 척도를 임부의 산전 관리를 위한 모성 정체성 사정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 2)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임부의 모성 정체성 척도를 이용한 반복 연구를 실시하여 척도의 타당도, 신뢰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 3) 임부의 모성 정체성 개념을 전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 이미지 지각에 대한 측정을 병행하여 모성 정체성의 인지적 차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 4) 임부의 모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의 확인 연구가 필요하다.
- 5) 임부의 모성 정체성이 motherhood의 실증적인 지표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임신과 출산 과정, 산욕기의 중요 변수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산욕기 여성의 모성 정체성을 조작화하는 연구와 함께 시간적 경과에 따라 모성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범중과 채서일(1994). SPSS/PC 사용법과 통계분석기법 해설. 서울 : 학현사.
- 김영채(1995). 사고와 문제 해결 심리학. 서울 : 박영사.
- 김현옥(1991). 임신부의 태아 애착행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
- 박아청(1995). 아이덴티티의 탐색 II. 서울 : 중앙 적성 출판사.
- 박영숙(1991).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전환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
- 소홍렬(1992). 자연주의적 유신론, 우주의 마음, 사람의 마음, 컴퓨터의 마음, 서울 : 서광사.
- 안숙희(1993). 임신한 부부의 태아 애착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1), 49-63.
- 영한사전(1984). 서울 : 민중 서림.
- 이영숙 외 10인(1995). 모성간호학, 서울 : 현문사.
- 이은숙(1992). 산욕기 초산모의 역할 획득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2(1), 5-20.
- 이은옥, 임난영, 및 박현애(1991). 간호. 의료연구와 통계분석. 서울 : 수문사.
- 이은희(1995). 초산부부의 임신경험에 관한 연구(부모 전환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혜경(1992). 산욕기 초산모의 역할획득에 관한 구조 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연순 외 6인(1994). 모성간호학. 서울 : 수문사.
- Antonucci, T.C., & Mikus, K.(1988). The power of parenthood : personality and attitudinal changes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Y.Michaels & W.A.Goldberg(E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 current theory and resear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anley, M.S.(1981). Development of a tool for the the measurement of maternal attachment during pregnancy. Nursing Research, 30(5), 281-284.
- Erikson, E.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 W.W. Norton & Company. INC.
- Goldberg, W.A.(1993). Perspectives on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G.Y. Michaels & W.A. Goldberg(E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mele, M.A.(1990). Third trimester concerns of expectant parents in transition to parenthood. Holistic Nursing, 4(3), 25-36.
- Lederman, R.P., Lederman, E., Work, B.A. & MacCann, D.S.(1979).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factors in pregnancy to progress in labor. Nursing Research, 28(2), 94-97.
- Lederman, R.P., Lederman, E., Work, B.A. & MacCann, D.S. (1981). Maternal psychologic and physiological correlates of fetal-newborn health status.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 Gynecology, 139(8), 956-958.
- Leifer, M.(1977). Psychological changes accompanying pregnancy and motherhood.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95, 55-96.
- Ludington-Hoe, S.M.(1977). Postpartum : Development of maternity. American Journal of Nursing, 77, 1171-1174.
- Mercer, R.T.(1981).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tudying the factors that impact on the maternal role. Nursing Research, 30(2), 73-77.
- Mercer, R.T.(1985). The process of maternal role attainment over the first year. Nursing Research, 34(4), 198-204.

Michaels, G.Y. & Goldberg, W.A. (1993).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Current Theory and Resear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Rubin, R. (1967). Attainment of the maternal role, part I : processes. Nursing Research, 16(3), 237-245.

Rubin, R. (1977). Binding-in in the postpartum period.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6, 67-75.

Rubin, R. (1984). Maternal identity and the maternal experience.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Walker, L.O., Cain, H. & Thompson, E. (1986). Maternal role attainment and identity in the postpartum period : Stability and Change. Nursing Research, 35(2), 68-71.

Webster Dictionary. (1988).

- Abstract -

Key concept : maternal identity, pregnant women

Development of a Maternal Identity Scale for Pregnant Women

Kim, Hae Won* · Hong, Kyung Ja**

This study was done to develop a Maternal Identity Scale for Pregnant Women and to test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cale. A convenience sample of 161 pregnant women were asked to complete the MISIP questionnaire which consisted of 45 item, this was done from December 20, 1995 to January 15, 1996.

The research procedure were as follows.

The first step was to identify a conceptual definition of maternal identity using Rubin(1984)'s maternal identity and maternal experience during pregnancy.

The second step was to operationalize the maternal identity, that is, perception of image possible

of selves as mother, maternal role play by imagination, and the experiences of various emotional responses which are embedded in the mother-fetus dyad.

The third step was item development which resulted in 45 items as appropriate measurement of maternal identity are except for the perception of image possible of selves as mother.

The result findings were as follows :

1) Four factors for MISIP (finally 40 items) were extracted through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varimax rotation, and these contributed 49.3% of the variance in the total score. All 40 items in the scale loaded above .43 on one of 4 factors.

2) Each factor was named : factor 1 was named maternal role imagery and has 10 items, factor 2 was named happiness and has 11 items, factor 3 was named maternal fetal interaction and has 10 items, and the last factor 4 was named negative emotion and has 9 items.

3) Cronbach's -alpha coefficient for internal consistency was .92 for the total 40 items and .89, .90, .86, .78 for the four subscales in that order.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below :

1) The developed MISIP be used to assess maternal readiness in pregnancy.

2) Replication study be done to test validity and reliability.

3) For the overall measure of Maternal Identity in Pregnancy, scale for the perception of image possible of selves as mother, and cognitive domain be reorganized for the maternal identity in pregnancy.

4) It is necessary to identify variables that influences maternal pregnancy.

5)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at maternal identity in pregnancy is a reliable index of motherhood, to do correlation studies on maternal identity and major maternal variables in maternal transition period, to reoperationalize the maternal identity in postpartum, and finally to designate a longitudinal study of the maternal identity changes or stabilities.

* Department of Nursing, Kwan dong University, Korea
Tel : 0391) 497-428 Fax : 0391) 497-602

**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el : 02) 765-4103 Fax : 02) 765-4103